

안산시,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 개최... 천혜의 자연속 특별한 경험

오는 9월 20일 토요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안산시는 9월 20일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 '제9회 대부해솔길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

하는 대부해솔길과 대부도의 생태,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행사에서는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 잔디광장을 출발해 대부해솔길 1-1 코스와 바다향기 테마파크 습지산책로, 방수제도로, 메타세콰이어길 등 총 5.5km 구간(약 2시간 소요)을 걸으며 참가자들에게 자연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시화방조제 미개방 구간인 방수제 도로를 일부 개방해 광활한 시화호의 풍경과 습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걷기 외에도 ▲축하공연 ▲느린 우체통 ▲대부해솔길 플로깅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다. 걷기 축제 참가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안산시관광협의회 누리집(www.ansantou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참가비는 1만원이다. 참가자에게는 행사장과 인

근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5천 원 소비쿠폰과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부도 관광안내소(1899-172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걷기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자연 속에서 건강과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부도의 매력과 생태 환경 보존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바다향기테마파크에서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대부에 취하자, 즐기자, 빠지자!'라는 슬로건 아래 '2025 대부에서 놀자' 축제가 개최된다. 대부해솔길걷기 축제 외에도 사흘간 열리는 '2025 안산 대부포도축제'와 '2025 안산 마라톤대회(9월 21일)'가 시민들을 맞이할 계획이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세계문화 체험캠프로 '여름방학 특강' 떠나보자
'2025 여름방학 특강 떠나보자 세계문화 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캠프는 안산시 관내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국가별 다양한 풍습과 전통 놀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은 '떠나보자 세계문화 체험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안산시 홍보담당관)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가 청소년들의 올바른 문화 인식 향상을 위해 지난 5일부터 3일간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및 다문화 특구 일원에서 '2025 여름방학 특강 떠나보자 세계문화 체험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체험캠프는 안산시 관내 초등학생을 주 대상으로 국가별 다양한 풍습과 전통 놀이, 먹거리를 제공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사진은 '떠나보자 세계문화 체험캠프'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제공=안산시 홍보담당관)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짜릿한 물의 향연! 안산서머페스타 개최

15~16일 안산문화광장에서
낮엔 물놀이, 야간에는
물대포와 함께 음악콘서트

안산시가 오는 15일(금)부터 이틀간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한여름 더위를 날려줄 대규모 물축제 '안산서머페스타 2025'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이번 축제는 안산문화재단의 대표 여름 브랜드인 '여름미오(YEORUMIO)'와 연계해, 도심 속에서 물놀이와 문화공연을 함께 즐기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시민들은 여름의 열기를 시원하게 식히는 물놀이와 함께 문화적 감성을 깨우는 공연과 체험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는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풀장, 거리 퍼레이드와 물총 싸움 등으로 구성된 워터파크존이 운영된다. 야간에는 물대포와 함께하는 청춘 콘서트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지역 예술인부터 인기 아이돌과 인기가수들이 출몰하며 열정과 낭만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체험존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시화조력관리단(K-water)의 친환경 수(水)차 만들기 체험 ▲이เอส지(ESG) 사회책임경영마켓 및 플리마켓 등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골고루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환경과 공공의 가치까지 함께 담아낸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점이 주목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물 절약 캠페인 ▲친환경 물총 사용 권장 ▲생분해성 물품선 체험 등 환경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터파크존이 운영된다. 야간에는 물대포와 함께하는 청춘 콘서트가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지역 예술인부터 인기 아이돌과 인기가수들이 출몰하며 열정과 낭만이 어우러진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체험존 ▲가족 단위 휴식 공간 ▲시화조력관리단(K-water)의 친환경 수(水)차 만들기 체험 ▲이에스지(ESG) 사회책임경영마켓 및 플리마켓 등 세대와 관심사를 아우르는 콘텐츠가 골고루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환경과 공공의 가치까지 함께 담아낸 시민 참여형 축제라는 점이 주목된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물 절약 캠페인 ▲친환경 물총 사용 권장 ▲생분해성 물품선 체험 등 환경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며,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을 알리는 등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를 알린다. 안전과 편의도 빈틈없이 준비됐다. 드라임존, 탈의실, 가족 휴게공간 등 세대를 배려한 편의시설은 물론, 행사장 전역에 미끄럼 방지 매트, 수상 안전요원, 응급의료진이 배치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서머페스타는 도심에서 청년의 열정과 시민의 활력이 만나는 새로운 여름 축제"라며 "축제는 시원하고 안전하게 즐기면서 지역경제에도 온기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축제 기간에는 광덕대로 일부 구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사전 안내와 네비게이션 앱 반영을 통해 교통 불편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안산서머페스타 2025'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물안경·물총·방수팩·슈즈 등 물놀이 용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전용 누리집(www.안산서머페스타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용 기자





총·방수팩·슈즈 등 물놀이 용품은 개인이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는 안산시 홈페이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또는 전용 누리집(www.안산서머페스타2025.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용 기자

황금빛 해변과 선셋의 감동 대부도 해변서 콘서트 4회 열린다

안산시는 9일부터 9월 20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2025년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선셋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부도 방아머리해변 상설공연장(단원구 대부항길로 1485-1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해변을 모티브로 네 가지 주제의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8월 9일 1회차 '선셋 하모니'를 시작으로 ▲8월 23일 '선셋 그루브' ▲9월 6일 '선셋 드림' ▲9월 20일 '선셋 페스티벌'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잔잔한 어쿠스틱 사운드 무대부터 ▲클래식 ▲재즈 ▲밴드 ▲뮤페라 등 다양한 공연이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밖에 별문아트, 마술쇼, 해변 댄스파티 등의 흥겨운 무대와 ▲나만의 키팅 만들기 ▲오션타투 ▲부채 꾸미기 ▲보물찾기존 등의 체험부스·놀이부스가 함께 준비돼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일상의 휴식과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선셋 콘서트 현장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증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음악을 감상하며, 무더위와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한여름의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행정사사무소**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대표 **박정탁**

안산시청 공무원 출신 행정사

◇ 2004년 안산시청 입사
◇ 2021년 안산시청 퇴직
◇ 대부도 3차례 근무 : 대부도 인허가 담당 (12~13년, 18년~21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Tel.032-880-8533 Fax.032-880-8532
Hp. 010-2378-7128 wjdxxkr78@hanmail.net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가설건축물
(체류형쉼터,농막)

개발부담금
불법사향해소
(건축물,임야,농지)
진정서, 탄원서
농지취득증명
각종민원해소

안산시청 김정미·서지연, 세계펜싱선수권 단체전 준우승 달성

여자 사브르 종목 8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준우승 쾌거

안산시는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소속 김정미·서지연 선수가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김정미·서지연 선수는 지난달 3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프랑스와의 여자 사브르 단체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두 번째 준우승에 기여했다. 이번 준우승은 여자 사브르 종목에서 8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김정미 선수는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이전인 지난달 22일 '2025년 독일 라인투르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단체전에 참가해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대한민국의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역대 최고 성적 달성에 한몫을 차지했다.

서지연 선수는 지난 2016년부터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6년째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으며,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펜싱부 소속 김정미·서지연 선수가 '2025 세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김정미 선수는 2023년 입단해 지난 해부터 국가대표선수로 기량을 뽐내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값진 결실을 만들어 낸 두 선수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

으로도 두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더 길고 새롭게!” 어린이 놀이터 ‘와~상상나라’ 운영 확대

안산도시공사, 신규 디지털 콘텐츠 2종 도입 만족도 ↑ 운영시간 및 수용인원 확대

안산도시공사는 어린이 체험공간 ‘와~상상나라’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시간과 수용인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체험 콘텐츠를 신규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와~상상나라는 안산시 단원구 와스타디움 내에 위치한 연면적 1,194㎡ 규모의 어린이 전용 체험시설로, 8종의 스포츠형 체험시설로 구성된 ‘어린이 스포츠존’과 9종의 창의 놀이체험 콘텐츠로 구성된 ‘어린이 상상스페이스’로 운영되고 있다.

안산도시공사는 이용객 만족을 위해 어린이 스포츠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콘텐츠 2종을 새롭게 도입했다.

신규 콘텐츠는 약 30여 종의 동작을

인식해 신체활동을 유도하는 ‘디지털 스포츠 체험’과 아이들이 직접 색칠한 그림과 상호작용하는 ‘디지털 컬러링 체험’이다. 신규 콘텐츠는 경기도 주관 ‘맘대로 A+놀이터 조성 사업’에 선정돼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됐다.

또 쾌적한 놀이 환경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예약제도 개선된다. 기존 하루 3회차에서 4회차 운영으로 확대하고, 정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해 일일 최대 수용인원을 기존 90명에서 160명으로 늘렸다.

개선된 운영 체계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9월 1일부터 ‘안산시 통합예약’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욱 안산도시공사 관광레저부장은 “시민 의견을 반영한 이번 개선을 통해 연간 약 1만 명의 이용객 증가



와~상상나라 내부시설 사진. (사진=안산도시공사 제공) 김태창 기자

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문화재단, 캐릭터 ‘홍이와 먹이’ 굿즈 판매 시작!

2025. 8. 15. ~ 8. 16. 판매 여름미오페스티벌서 최초로 8월 13일까지 안산문화재단 인스타그램 통해 사전예약

(재)안산문화재단(대표이사 김태훈)은 자체 개발한 캐릭터 ‘홍이와 먹이’의 굿즈를 오는 8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2025 물축제&여름미오페스티벌’에서 최초로 판매를 시도한다.

‘홍이와 먹이’는 2019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역특화스토리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통해 김홍도미술관이 개발한 캐릭터이다. 이번 굿즈 출시는 시

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문화재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굿즈는 실용적인 아이템으로 구성되며, 인형키링, 아크릴키링, 물젓키링, 동전지갑, 실리콘 찜, 장바구니, 레디백으로 총 7가지의 품목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한정 수량으로 제작된 만큼 소장 가치가 높고, 향후 시민들의 반응에 따라 추가 굿즈 시리즈 출시도 고려하고 있어 캐릭터 팬들과 시민들의 큰 관심이 기대된다.

8월13일까지 사전예약을 통해 ‘홍이와 먹이’ 투명포도카드를 증명하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다. 사전예약은 안

산문화재단 공식 인스타그램(@ascf_ansan)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안산문화재단 관계자는 “홍이와 먹이는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을 시민들과 친근하게 나누기 위한 상징적 캐릭터”라며 “굿즈 출시는 그 첫걸음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사업과 콘텐츠에 캐릭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름미오페스티벌은 안산문화재단이 매년 여름 시민과 함께하는 대표 문화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물놀이 프로그램이 함께 펼쳐질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문화재단이 자체 개발한 캐릭터 ‘홍이와 먹이’의 굿즈 모양이다. 윤성용 기자

市 ‘생수 나눔 챌린지’ 전개 무더위 속 이동노동자 응원

안산시는 최근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 속, 거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이동노동자를 응원하기 위해 ‘생수 나눔 챌린지’를 진행하고 6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시민들이 이동노동자에게 생수 한 병을 전하며 응원의 마음을 나누는 시민 참여형 캠페인으로 이달 말일까지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시민 누구나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을 위해 현관 앞에 시원한 생수를 놓아두고, 그 사진을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된다. 필수 해시태그는 #안산 #생수나눔챌린지 #안산시생수나눔 #이동노동자 등이다. 챌린지 참여자 대상에 50명에게는 아이스크림(베스킨라빈스)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폭염에 취약한 이동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민근 시장은 “생수 한 병에 담긴 마음이 무더위에 지친 이동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안산을 만들어 가는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



‘생수 나눔 챌린지’ 디지털 홍보자료. 정희재 기자

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이동노동자 전용 쉼터 ‘월링’ 3개소를 운영하면서 운영질환 예방물품과 생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4호점(단원구 선부동 1076-13번지) 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T/F팀 운영 ▲살수차 가동 ▲노숙인, 독거노인, 옥외 노동자 등 취약계층 안부 확인 ▲무더위 쉼터 및 민간협력 무더위쉼터(은행, 대형마트) 운영 ▲폭염 취약계층 대상 피해 예방 물품(쿨도시, 쿨스카프 등) 지원 ▲건설공사장 대상 현장 점검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도와 오존주의보 대국민 알림체계 개선 추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7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세미나실에서 ‘오존경보제’를 운영·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대국민 알림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한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경보*(주의보, 경보, 중대경보)를 발령하여 국민들이 위험을 회피하고 건강을 보호하도록 광역·도(보건환경연구원)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25년도 오존주의보 발령 일수 : 서울 14일, 인천 13일, 경기 27일 (4~7월)
▶발령조건(농도) : 주의보(0.12

ppm 이상), 경보(0.3ppm 이상), 중대경보(0.5ppm 이상)

이번 회의는 수도권 광역·도에서 오존주의보 발령 현황을 건강취약·민감계층(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에 전파 지연 및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파체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휴대폰 앱(에어코리아), 알림톡, 안전문자, 도로전광판,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 표출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정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오존경보제 체계를 개선하여 알림 지연 또는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서울예술대학교 인사발령

- ▶ 기획처장 고주원
- ▶ 교무처장 김도균
- ▶ 입학학생처장 정상우

▶ 산학협력처장 단장 윤권수 (2025. 8. 1)

본사방문 감사합니다

△김창성 신나라관광 대표
△김용만 대부도헬스장 관장
△김진영 KT서부지부장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2차 회의 개최 “산재STOP신고센터 운영 본격화·제도개선 착수”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재해 제보를 수집하고 제도개선으로 연계하기 위한 「산재 STOP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논의하고 즉각적인 홍보와 신고 취합에 착수했다.

김주영 단장은 “TF 내 상임위원 책임의원제를 도입하고, 폭염 등 계절별·업종별 대응 로드맵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현장대응과 제도개선을 병행하겠다”라고 TF 운영방향을 밝혔다.

박해철 간사는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에서도 확인했던 산업현장 전반의 안전 불감증과 제도적 허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고센터와 현장대응체계를 통해 산업재해 사각지대를 감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소속 상임위와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재예방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특히 8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방문 활동과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세부 안건으로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산재 STOP 신고센터」는 구글맵 기반의 온라인 제보창구로 산재 은폐·미보고, 산재 후속 조치 미흡, 사업장 안전보건 위해 요소 사전 신고 등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의원들의 긴급 현장방문이나 부처와의 협업을 통한 특별지도감독 요청, 입법 제안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TF는 분기별로 센터 운영 실적을 공개하고

언론에 공유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는 ▲매월 셋째 주 정례회의 개최 ▲월 1회 이상 정기 현장방문 및 수사 사고 현장 긴급 대응 ▲국정감사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등 구체적 운영규칙 및 활동계획도 함께 의결했다. 한편, TF는 포스코이앤씨 현장 사망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 및 입법 과제로 ▲천공기 작업 관련

안전기준 강화(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 ▲크레인 이동형 천공기의 내구연한 기준 설정, ▲작업 공간 구조기준 마련 등을 도출하고, 향후 점검과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는 김주영 단장, 박해철 간사를 비롯해 김윤, 김태선, 박홍배, 박희승, 염태영, 이용우, 이훈기, 정진욱 의원 등 산재예방TF 소속 의원 10명이 참석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미디어광고산업진흥법」 대표발의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으로 20조 광고 시장 체계적 육성 및 지원 기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국회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경기 안산시갑, 사진)은 7월 29일, 광고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이하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광고산업은 약 20조 원 규모로, 출판·만화·음악·영화 등 콘텐츠산업 11개 분야 중 생산유발효과 1위, 부가가치유발효과 3위, 고용유발효과 3위를 기록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이처럼 광고산업은 국민경제와 콘텐츠산업에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광고산업 관련 법령과 정책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이고 일관된 진흥정책 수립

과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 제정안은 광고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관련 제도와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제정안에는 ▲‘광고진흥종합계획’ 수립 ▲광고산업 실태조사 ▲시범사업 시행 ▲전담기관 지정 ▲전문인력 양성 ▲‘미디어광고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등 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으며, 법의 취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는 최소화했다. 양문석 의원은 “광고산업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이자, 문화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광고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지고,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K-광고’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광고산업 진흥법 제정안에는 김동아·김주영·양문석·이광희·이기현·이언주·임오경·전용기·조계원·허성무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김현 의원, 안산시 숙원 사업 추진 동력 확보... 34.5억 원 규모

노후 시설 개선 및 살기 좋은 동네 여건에 집중 시민들의 숙원 사업 해결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사진)이 경기 도로부터 총 34억 5,000만 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안산시 중

앙동의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개선 공사 등 주요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생활 인프라 개선에 투입될 예정이다.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안산시 곳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전략적으로 배분된다.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다. ▲중앙동 중앙대로 녹도 재정비 사업 (8억 원) ▲이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물 시설개선 공사 (5억 원)

▲부곡동 537번지 노외주차장 고도화 사업 (5억 원) ▲성포동 성포공원 체육시설 정비 사업 (3억 원) ▲이동 매화어린이공원 환경 개선 사업 (3억 원) ▲고잔동 적금로 동 4개소 일원 도로 및 시설물 정비 공사 (3억 원) ▲안산동 안산향교 복원 정비 사업 (2억 원) ▲중앙동 중앙공원 다목적 운동장 시설개선 사업 (2억 원) ▲호수동 호수계이트볼장 환경 개

선 사업 (1억 5,000만 원) ▲성포동 성포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사업 (1억 원) ▲성포/월피동 성포광장 일원 교통환경 개선 사업 (1억 원) 김현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는 안산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소통하며 더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우여곡절 끝에 열린 대부도 뱃길...현장 점검 나서

반달섬-방아머리 시범 운항 여객선 탑승 및 현장 간담회 도선 기대미흡... 운항 난감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현장 점검과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1일 진행된 현장활동에는 박태순 의장을 비롯해 김재국 부의장 한명훈 기획행정위원장 설호영 문화복지위원장 박은정 도시환경위원장 김유숙 기획행정부위원장 유재수 문화복지부위원장 이지화 도시환경부위원장 박은경 한갑수 이진분 최찬규 선현우 황은화 의원 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이날 반달섬 선착장을 찾아 지난 7월 29일부터 시범 운항 중인 여객선에 탑승해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까지 다녀오는 일정을 소화했다.

의원들은 선착장 현장에서 안산시 소관 부서인 해양수산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대부도 뱃길 사업은 그간 전기추진선박의 배터리 성능 저하 문제 등으로 운항선박 건조·구매 계약 해제와 사업자 변경이라는 난항을 겪었다.

현재는 새로운 위탁 사업자가 전기선박 대신 디젤을 연료로 하는 여객선을 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

으며, 이미 투입된 운항선박 건조·구매 사업비의 반환이 숙제로 남은 상황이다.

의원들은 위탁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파악하고, 시 측에 선박 건조비 등의 매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현재 건조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람선의 운항을 포함한 운영 부문에 있어서도 안전 확보와 흥행 성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특히 여객선 시설을 사용자 중심으로 보완해 쾌적한 승선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태순 의장은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으로 대부도 뱃길 운항이 시작되는 만큼 시 집행부는 무엇보다 안전 운항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안산의 자랑인 시화호와 대부도를 잇는 뱃길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안산 대부도 뱃길 여객선 운항은 오는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화호를 운항하게 될 여객선은 실외에서는 시화호 구경을 할 수 없고 실내에서만 야외를 바라볼 수 있는 배로 내부 역시 비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벤치마킹

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방문해 연구 필요 정보 수집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대표의원 황은화)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찾아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의원연구단체 소속 황은화, 송바우나, 유재수, 선현우 의원을 비롯해 의회사무국 관계자와 용역사 연구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서울외국인주민센터는 2014년 서울특별시사가 설립하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지역의 외국인주민 종합지원 거점기관으로,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사회통합을 돕기 위해 다국어

상담·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장방문단은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정책 4대 마스터 플랜과 서울 외국인주민센터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상호문화도시 안산시의 사회적 통합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와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센터의 운영 현황과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 경험,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사례 등을 상세히 파악했으며, 이주배경 청소년 교육 지원 및 이주여성·동포 고령화 문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두 도시 간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원연구단체 ‘너와 나의 연결고리’가 지난 7월 3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외국인주민센터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황은화 대표의원은 “서울의 외국인주민이 매년 주제를 선정하여 지역사회 화두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서울특별시와 안산시의 외국인 주민 정책을 비교·검

토해 우수한 내용은 적극 반영해 안산시민의 특색을 살린 정책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 산악회, 7월 산행 연천군 재인폭포에 ‘시원하게 풍덩’

산악회원 40명 단체로 7월31일에 함께 다녀와

대부도 산악회(회장 김근오) 회원 40명은 7월 31일 연천군에 있는 재인 폭포에 다녀왔다. 산악회원들은 신입 회원들이 많아 그들의 각자 소개를 듣고, 회원 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자기영업 소개와 함께 홍보도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됐다.

대부도 산악회는 대부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단체 카톡에 공고를 하면 산행비 선입금 하는 순으로 44명까지 참여 할 수 있다.

재인폭포는 한탄강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진 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곳으로 오래 전부터 명승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재인폭포는 북쪽에 있는 지장봉에서 흘러 내려온 작은 하천이 높이 약 18m에 달하는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으로 쏟아지는 것이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산악회원들은 재인폭포로 가는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해 힘차게 내리치는 물줄기를 맞으며 시원한 시간을 보냈다.

주변에 있는 개울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수박을 먹으면서 불볕더위를 식히고 자연의 묘미와 신비로움을 느끼고 산악회를 통해 이곳저곳 아름다운 경관을 구경하는 재미는 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귀가 길에는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대부도 주민들끼리 서로를 알아가며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도 했다.

대부도 산악회는 전국 유명한 관광



대부도 산악회 회원 40명이 7월 31일 연천군에 있는 재인폭포에 다녀왔다. 회원들이 모두 함께 모여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정찬빈 시민기자

지를 두루 다니며, 힐링하고 즐기면서 견문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얻어 생활에 적용하면서 보람 있는 생활을

이어 가고 있다.

대부도 산악회 가입은 회장 김근오(010-5339-2027)나, 총무 황영애

(010-8223-5646)에게 연락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정찬빈 시민기자 jeongcb@hanmail.net

청보리 수확물 40포 기부 지역사회 나눔 실천



대부바다항기타테마파크 유희지에 조성된 청보리밭 전경.

윤성용 기자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

안산시시는 최근 대부바다항기타테마파크 유희지를 활용해 청보리밭을 시범 조성하고, 이곳에서 수확된 청보리 40포(5kg)를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추진됐다. 시는 작물 시험·연구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바다항기타테마파크 내 경관 농업특화단지 일원에 약 6,0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운영했다.

지난 7월 건조 및 도정 작업을 거쳐 수확된 청보리는 민간(안산청년농

조합법인 김건천)의 무상 지원으로 탈곡·포장 작업까지 완료한 뒤 기탁됐다.

서병구 대부해양분부장은 “대부바다항기타테마파크 유희지를 활용한 청보리밭 조성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작물 시험·연구를 통한 농업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도심 속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경관농업 특화 공간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된 청보리 40포는 관내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도 연안 해상에 조피볼락 치어 방류

안산시는 1일 대부도 연안 해상에서 고소득 품종인 조피볼락(우럭)의 치어 방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방류는 급감하고 있는 바다의 생산성 향상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시는 총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투입해 고소득 어류 품종을 방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수산자원조성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과 업무협약을 맺고

건강한 종자 선별을 위한 전문성을 높였다.

지난 5월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거친 점농어 치어 9만 마리와 쥐노래 치어 5만 마리의 방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64만 마리의 조피볼락 치어를 방류해 계획된 3개 품종, 총 78만 마리의 수산자원 조성을 완료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네 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 추진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에 싱크대 교체 지원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네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완료했다고 7월 28일 밝혔다.

‘동네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은 2025년 연말까지 지속될 예정으로, 지사협 3개 분과(발굴분과, 나눔분과, 햇살분과)가 취약계층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해소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사업은 지사협 발굴분과와 나눔분과가 협력해 진행했으며, 대상 가구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노후화로 인해 사용이 어려운 싱크대를 새롭게 교체하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졌다.

지사협은 앞으로도 관내 취약계층



단원구 대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네구석구석 불편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취약계층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싱크대를 교체하는 주거환경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보태겠다.

최희영 민간위원장은 “이번 싱크대 교체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함께한 나눔의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

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봉순 대부동장은 “이웃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주신 지사협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함께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선감학원’ 홀로 떠맡았던 경기도, 정부와 함께 피해자 곁 지킨다

선감학원 손해배상소송 상고 포기·취하, 항소심 전면 재검토 및 최소화 결정

경기도는 지난 5일 법무부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상소(항소·상고)를 포기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견에 발맞춰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사업,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을 지속하겠다고 6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자신의 누리소통망을 통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서면서 선감학원 피해 보상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경기도도 즉각 상고를 포기, 취

하한다”고 항소 취하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현재 진행 중인 다른 항소심 사건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항소를 취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감학원 소송은 현재 43건(원고 379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1심은 19건, 2심(항소심)은 20건, 3심(상고심)은 4건이다.

경기도는 법무부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이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정부의 의견 표명 전까지 홀로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라는 짐을 떠맡아왔던 경기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도와 정부가 함께 피해자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직후인 2022년 10월 과거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 치유와 명예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 공식 사과한 바 있다. 국가 차원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뒤 경기도 차원의 첫 공식 사과였다.

김 지사의 공식 사과 이후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월 20만 원 생활비, 위로금 500만 원(1회), 의료·심리지원(누적 1,600건 이상)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신적 트라우마도 치유할 수 있도록 피

해자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 단원구 선감동 산37-1)에서 유해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4월 155기 중 67기에서 유해가 발견됐다. 당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경기도는 협조기관으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정안전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돼 경기도는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사항(국가를 대상으로 희생자 유해발굴 등 권고)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하기로 하고 발굴을 진행했다. 이러한 공로로 경기도는 2024년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형 기자

대부도 단신

베이킹 원데이클래스 참여자 모집

대부도복지센터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베이킹 원데이클래스를 진행한다. 8월12일 오전11시부터 1시간 동안은 해변 케이크 만들기,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은 해변쿠키, 튜브도넛만들기를 진행한다. 장소는 대부도복지센터(상동어울림센터 2층), 인원은 대부도 내 초등학교생(각 클래스당 15명)이다. 신청은 대부도복지센터(010-4258-2151)로 하면 된다.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비대면조사는 2025년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다. 방문조사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031-481-6946)로 문의하면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신청기간은 2025년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신청대상은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안산시민이고 대리신청 가능한 가구원이 있을 경우는 제한된다. 신청방법은 관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유선 접수하면 된다. 대부동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031-481-6101)로 하면 된다.

2025 대부도포도축제 포도 직거래 부스 참여농가(단체) 모집

신청기간: 2025. 8. 10(일)까지
신청방법: (사)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해당 동 담당 통장)에 신청 문의: (사)대부도포도축제위원회(해당 동 담당 통장)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 「와락와락 바지락 축제」 성공적으로 마무리

청소년자치위원회가 만든
소통과 교류의 장,
대부도의 여름 선사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센터장 이향미)은 여름 방학을 맞아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들로 채워졌으며, 지역사회와 응원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바지락은 바르게, 지혜롭게, 즐겁게의 애칭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6일 상동어울림센터 3층에서 진행됐다.

행사는 ▲젤리 인 더 아이스 ▲테시벨 게임 ▲포도씨 닥트 ▲바블리에(음료 맞추기 게임) 등 다양한 테마별 체험으로 구성됐으며 ‘즐거락’, ‘모여락’, ‘남겨락’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특히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한 ‘방명록 작성’과 ‘인생네컷 전시’, ‘즉석 사진 촬영’, ‘보물찾기’는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지난 행사에서는 예상보다 참여 인원이 적어 준비한 프로그램이 원활하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이 여름방학을 맞아 6일 상동어울림센터 3층에서 청소년자치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 지역사회의 응원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김태창 기자

게 운영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청소년자치위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예상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각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청소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활기 넘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행사 진행에 참여한 청소년자치위원 김나은(대부중)위원은 “다들 재미있게 참여해 줘서 정말 기쁘고, 준비한 시

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대부고등학교 김민준 학생이 ‘천상연’, ‘아로하’, ‘베텔가우스’ 등 감미로운 무대로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청소년자치위원들이 함께 부른 ‘여행을 떠나요’로 행사를 마무리해 감동을 더했다.

(재)안산시청소년재단 전희일 대표이사는 “대부도에서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이 지역 명물로 자리 잡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대부도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대부도 늘해랑 학부모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간식이 제공되어 참가자들에게 즐거움과 따뜻한 정을 더했다. 청소년자유공간 ‘바지락’은 앞으로도 청소년 주도의 자치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축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안산시, 성호장 재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산시는 6일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성호장(星湖莊) 재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이익 선생 거주한 가옥
‘성호장’ 재현을 위한 것

안산시는 6일 성호박물관 대강당에서 ‘성호장(星湖莊) 재현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안산의 대표인물이자 실학사상의 거두인 성호 이익 선생이 거주한 가옥 ‘성호장’ 재현을 위한 전반적인 구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허선영 안산대학교 호텔관광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고분야 전문가 5명의 연구단이 참여하고,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익 선생 후손 ▲향토사연구자 등이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성호장 재현 관련 학술적 고증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특히, 이날 일동과 이동, 부곡동 등 인근 동 3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호장 재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성호장이 단순히 성호 이익 선생을 기리고 전시하는 공간이 아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자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번 용역은 최종보고회 후 오는 9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성호장 재현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다. 구체적 일정은 반사회보에 게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성호박물관(031-481-257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선희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미래권력의 돌연변이화, 변종 프로 파간다의 시대를 예언한 블랙코미디

안산문화재단, 오픈 더
보노마루 공식초청작
〈맴핑 히틀러〉 공연

(재)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태훈)은 오픈 더 보노마루 공식초청작으로 연극 『맴핑히틀러』를 오는 8월 20일(금)부터 31일(일)까지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총 4회에 걸쳐 공연한다고 밝혔다.

‘오픈 더 보노마루’는 (재)안산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사업으로 안산시 상록구에도 전문 공연장이 존재함을 알리고, 소극장 보노마루가 전문 공연장으로서 기능을 확장하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연되는 『맴핑히틀러』는 예술창작공장 콤파랜드(대표 이태린)의 신작이자 SF연극 시리즈 〈미래의 현대인에 대한 추상〉의 3번째 작품이다. 2025 경기에술

지원 〈연극〉부문 선정작으로 오는 8월 소극장 보노마루에서 관객과 처음 만난다. 나치의 선전정권 괴벨스의 도움을 받아 미디어 프로파간다를 이용해 사람들을 선동한 후, 정권을 탈취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를 2030년대의 미래 한국의 최준생 청년으로 비틀어 해석한 블랙코미디이자 정치풍자극이다.

작품은 천만 구독자의 위세를 등에 업은 유튜브에서 소셜미디어의 가공할만한 힘을 이용해 대통령 당선자가 된 평범한 청년 한들호의 파란만장한 장광설을 펼쳐보이고자 한다. 제목 맴핑히틀러 속 맴핑은 디지털 영상을 다양한 형태의 물체, 피사체에 투사해 표현하는 미디어 기술인 ‘프로젝션 맴핑’에서 따왔다. 실제 극 중에서는 유튜브라는 가상공간과 근미래의 모습인 맴핑이라는 컨셉으로 표현될 예정이다.

김태창 기자

여자유도 새역사 안산시청 소속 김하운 선수, 금빛 영광 나눠



이민근 시장(오른쪽 세번 째)이 1일 김하운 선수(오른쪽 두번 째)로부터 메달을 전달받고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희재 기자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
금메달 영광 시와 함께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한국 여자유도의 새로운 역사를 쓴 김하운 선수(안산시청 소속)가 금메달의 영

광을 안산시와 함께 나눴다.

안산시는 1일 안산시청에서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유도부 소속인 김하운 선수의 금메달 봉납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대한민국 여자유도의 간판이자, 여

자 최충량급 최강자로 떠오른 김하운 선수는 ‘2025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과 ‘2025 라인루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연이어 최정상 자리에서 올랐다.

김 선수는 지난 6월 13일부터 20일

까지 개최된 세계선수권에서 한국 여자유도 역사상 34년 만에 개인전 금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혼성 단체전에서 은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이를 동력으로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과 혼성 단체전 동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유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이날 김하운 선수는 “연이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 매우 기쁘지만, 아직 우승하지 못한 아시아선수권대회와 올림픽 우승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산시와 한국 유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민근 시장은 “힘든 훈련 과정을 이겨내고 우수한 성적으로 안산시를 빛낸 김하운 선수에게 시민과 함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 김 선수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안산 제조기업 25년 3분기 경기전망지수 ‘76.7’, 주력 업종 부진

안산상공회의소가 관내 제조기업 12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직전 분기(78.0) 대비 1.3p 하락한 76.7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종합 전망지수(81.0) 및 경기도 종합 전망지수(86.0)에 비해 낮은 수치다. 특히, 안산지역 주력 업종인 기계설

비와 전기전자 업종의 하락 폭이 두드러졌다. 기계설비 업종은 전분기 대비 17p 하락한 50.0, 전기전자 업종은 34p 하락한 79.0을 기록했다. 두 업종 모두 BSI 기준치인 100을 밑돌며,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를 반영했다.

세부 업종별로는 목재종이(150.0), 섬유유복(143.0)이 ‘호조’를, 비금속

(100.0) 업종은 ‘보합’을 전망했다. 반면, 기타(94.0)와 전기전자(79.0)는 ‘부진’, 철강금속(73.0), 석유화학(63.0), 운송장비(58.0), 기계설비(50.0) 업종은 ‘침체’를 전망했다.

항목별로는 매출액(80.6), 설비투자(79.1), 자금사정(76.0), 영업이익(69.8), 종합(체감)경기(76.7) 모두 ‘부진’할 것으로 조사됐다.

김태창 기자

전년 대비 올해 계획한 매출 실적 목표 수준에 대해 응답기업의 58.2%가 지난해 설정한 목표치보다 낮다고 응답했다. 이 중 ‘10% 이내 소폭 하향(48.1%)’, ‘크게 하향(10.1%)’순으로 조사되었고, 그 외 ‘지난해 수준(26.4%)’, ‘10% 이내 소폭 상향(12.4%)’, ‘크게 상향(3.1%)’순으로 나타났다.

사이동, 공공체육시설 활용 배드민턴 프로그램 운영



상록구 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부터 공공체육시설인 장화체육관에서 배드민턴 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사이동은 이를 통해 주민들의 여가 활동에 도움을 주고 정신건강 및 육체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이동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주민 20명이 참여한다. 강의는 안산시 배드민턴협회에서 추천한 전문 강사가 맡으며,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두현은 사이동장은 “진입장벽이 낮은 배드민턴을 통해 주민들이 더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전했다.

또 “건강하고 살기좋은 사이동을 만들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할것인 만큼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건강한 시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bareuge@hanmail.net

성민의원, 신길 휴먼시아9단지경로당과 1사1경로당



단원구 신길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성민의원과 휴먼시아9단지경로당이 '1사1 경로당 후원 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성민의원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소재한 병원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상담과 의료서비스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하기 위해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1사1경로당 사업은 기업과 경로당 간 결연을 통해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박성민 성민의원 원장은 “병원 개원 20주년 기념으로 의미 있는 일을 고민한 결과 어르신들에게 보답할 기회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후원 활동을 적극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종인 신길동장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에 관심 갖고 후원해 주신 성민의원 관계자들에 감사드리며,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동에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선화 기자

안산동, 상록경찰서와 함께 ‘안심 보행로’ 조성 완료



상록구 안산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 주민의 야간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록경찰서와 협업해 진행한 ‘안심 보행로 조성’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설치 대상지는 ▲안산큰어린이공원 벽화길, ▲원당어린이공원앞 벽화 등 주민 불안감이 높았던 취약지역 7여 곳이며, 상록경찰서는 여성 범죄 예방을 위한 ‘여성 안심귀갓길’ 조성의 일환으로 2곳을 선정해 노면표시 및 조명 보강 등을 완료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가로등이 부족하거나 사각

지대가 존재했던 지역에 집중 설치해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야간 보행자의 편의성 향상에도 기여했다.

구슬환 상록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지에 대한 범죄예방진단을 지속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박하연 안산동장은 “이번 사업은 안전한 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와동 새마을회, 홀몸 어르신을 위한 반찬봉사 행사



단원구 와동 새마을회는 5일 와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봉사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새마을회원들은 와동 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제육볶음과 오이지무침 등으로 구성된 반찬 50세트를 손수 만들었다.

와동 새마을회는 올해 벌써 세 번째 반찬 나눔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다.

김치동 회장은 “이번에 전달된 반찬이 와동 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란다”며 “와동 새마을회는 앞으로도 소외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와동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숙 부녀회장은 “새마을회의 열정과 정성이 이번 반찬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생각하는 와동 새마을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수애자 와동장은 “힘써주신 와동 새마을회 회장님들과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와동 행정복지센터도 여름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재 기자

원곡동, 어르신 건강 기원하는 ‘삼계탕 나눔 행사’



단원구 원곡동 새마을회는 5일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원곡동 복달임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철 관내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직접 끓인 삼계탕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孝와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원곡동 새마을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안산서부새마을금고의 후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만든 삼계탕은 원곡동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 등 200여 명에게 전달

할 예정이다.

전유현 새마을회장과 한희정 새마을부녀회장은 “회원들이 직접 만든 삼계탕이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손석주 원곡동장은 “지역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에 직접 찾아가 삼계탕을 전달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수재민 돕기 위해 나서



단원구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는 4일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 활동을 펼친 옥수수 판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진행됐으며, 새마을남녀협의회에서 평창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 정성껏 준비한 옥수수 200자루를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중 일부는 최근 집중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으

로 기탁될 예정이다.

이종찬 새마을협의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수해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라 중앙동장은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중앙동 새마을남녀협의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용 기자



용방건설산업(주)

- | | |
|-----------------|----------------|
| ■ 토목사업 | ■ 지반조성 포장 공사업 |
| ■ 연약지반 공법 시공업 | ■ 중장비 매매 및 임대업 |
| ■ 파일 항타 공사업 | ■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
| ■ 비계 구조물 해체 공사업 | ■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

대표 서승대 M. 010.2605.9877

안산시 단원구 구봉길 35 2층



市, 팔곡산단 조성 사업 준공인가 완료… 산업 성장 발판 기대

총 14만㎡ 규모 조성, 단계적 준공 방식 통한 행정 노력

안산시 팔곡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준공이 최종 인가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의 전환점

을 맞게 됐다.

안산시는 상록구 팔곡이동 일원에 ‘안산 팔곡일반산업단지(이하 팔곡산단)’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고 최근 준공인가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착공에 들어간 지 5년여

만에 최종 사업을 마무리 지은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 팔곡이동 산 29-1번지 및 610번지 일원에 조성한 산단은 총면적 14만 1,050.4㎡(약 4.2만 평) 규모다. 이 사업에는 총 69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안산도시공

사가 시행을 맡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인 사업 부지는 ▲산업시설용지(6만 4,593㎡) ▲지원시설용지(3,008㎡) ▲공공시설용지(7만 3,448㎡)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는 화학물질 제조, 금속가공 산업군

등으로 현재 39개사가 입주 후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사업 추진 대상 부지 내 분묘 이전 지연과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일정 부분 절차가 지연됐지만, 시설 용지별 공구 분할을 통한 단계적 준공

방식을 택하는 방법으로 전체 준공을 마무리했다.

이번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 기반이 확대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팔곡산단은 서해안고속도로 매송 IC 및 수인산업도로 등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도심과의 접근성도 우수해 탁월한 입지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태창 기자

토지매매

- (1)대부북동삼거리 인근 성장관리계획구역 주택단지
- (2)건축허가 300평(도로56평 포함). 평당 90만원
- (3)미준공주택 11년. 대250평/건40평. 3억7000만원

김선중 공인중개사 M: 010.3199.4992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광고문의

032.880.9994

 **대부도저널**

바지락마을손칼국수2호점

백영태 M. 010.4403.449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해안로42 (대부북동)

최육진 세무회계사무소

최육진 T: 031.8042.6670

안산시 상록구 28,201호(본오동,보노피아빌딩)

선재낙시공원

조부형 M. 010.8813.0515

리라조경

박용복 M. 010.3703.9300

인천광역시 옹진군 선재로 34번길 23, 103호

대부도 주민자치회

위원 황진 M. 010-7632-1150

한주토목측량설계공사

김장식 M. 010.5345.985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40-1 (대부북동)

용담바다낙시터

오준태 M. 010.5285.0667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용담바다낙시터



행정사사무소

박정탁 M: 010.2378.7128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504-2

등대바다낙시터

이한종 M. 010.3738.66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187-4

동주염전 소금

토판 소금 / 일반 천일염 / 송하소금 판매

김관중 M: 010.9080.1195

안산시 단원구 중부흥 127-1 / 동주염전 2구

말부흥 어촌계

계장 신준선 M. 010.7340.5511

K3 바다낙시터

최병희 M. 010.5230.853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643-35

(주) 황금토목측량설계공사

유재용 M. 010.3433.463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황금로1288 (대부북동)

GS25 대부포도점

빈호준 M. 010.9220.203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선로 667(대부남동), 202호

서해부동산

박현배 M. 010.8810.380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어지런이길 61-8(대부남동)



미래기획

25년 경력 간판. Led채널. 현수막. 씬팅. 현수막

이 병 철 M: 010.9366.9699

규현공방

수족관 제작에서 관리까지 맡겨주세요

조규현 M: 010.4071.2797



(주)대동토지개발

양금순 M: 010.8722.5095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633, 118호



대부도 방아머리의 명소

카캉스

조재숙 M: 010.2492.1800

안산시 단원구 대부황금로 1501-1



히든 펜션

최은숙

안산시 단원구 대호1길 19 M : 010.9913.8956



전 객실 바다전망 테마가 있는 유럽풍 펜션

아테네펜션

차준경 M: 010.5353.2755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1622-5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성금 기탁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충남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당진시장,당진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성금 기탁식에서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했다. 기탁식에는 이의명 협의회장(웅진군의회 의장), 이종호 감사(중구의회 의장), 송승환 사무총장(서구의회 의장), 신정숙 의장(계양구의회 의장)이 참석했으며, 전경애 부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 유옥분 의장(동구의회 의장), 박현주 의장(연수구의회 의장), 이정순 의장(남동구의회 의장), 안애경 의장(부평구의회 의장), 한승희 의장(강화군의회 의장)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7월 월례회의에서 의원총회 행사에 사용할 예산 500만 원을 수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하자는 안건에 대해 전원 찬성으로 추진됐으며, 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깊은 위로와 조속한 일상 회복에 대한 희망을 담았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5일, 충남 당진시청을 방문하여 당진시장,당진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성금 기탁식에서 당진시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당진시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했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인천광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는 어려운 이웃

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웅진군,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량 확보 총력

농림축산식품부에 공공비축미곡 물량 안정적 확보 위해 건의

웅진군은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확보에 대해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는 쌀 수급 안정과 더불어 이상기후 등 비상시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미곡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로, 섬 지역으로 농업 여건이 열악한 웅진군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제도에 농가 소득의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방문하여 도서지역이며 접

경지역인 웅진군의 열악한 농업 여건과 더불어 섬을 지키며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농업인들의 애환을 관계자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금년도 웅진군 공공비축미곡의 매입물량이 충분히 배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문경복 웅진군수는 “우리군은 도서지역으로 이루어져 쌀 생산과 출하의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입물량 확보와 관련하여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브랜드쌀 생산 등 정부 수매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정희재 기자 heejae0919@hanmail.net



웅진군은 8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방문하여 2025년 공공비축미곡 매입물량 확보에 대해 건의했다.

웅진군 ‘7개면 현안 및 주민 건의사항 간담회’ 마무리



웅진군은 지난달 8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10일 연평면, 15일 백령면, 16일 대청면, 22일 덕적면, 24일 자월면, 30일 영흥면 등 웅진군 7개면을 전부 순회하며, '면별 현안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 간담회'를 각계각층의 지역리더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사진은 영흥면에서 가진 간담회 모습이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7월 30일 영흥면을 끝으로

웅진군은 지난달 8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10일 연평면, 15일 백령면, 16일 대청면, 22일 덕적면, 24일 자월면, 30일 영흥면 등 웅진군 7개면을 전부 순회하며, '면별 현안사항 및 주민 건의사항 간담회'를 각계각층의 지역리더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고 밝혔다. 군의 국장급 주요 간부들이 동행한 이번 간담회에서 문경복 군수는 지역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군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현안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민선 8기 지난 3년간 81개리 전체 마을을 방문하며 진행했던 '리별속속

간담회'등 다양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고충이 담긴 1,004건의 주민 건의사항의 진행사항도 함께 공유했다. 이중 완료 및 추진 중인 주민건의는 약 87%의 높은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서해평화도로와 장봉~모도 연도교, 군민의 집 건립, 인천 i-바다 패스, 백령항로 대형카페리선 도입, 백령공항 및 배후부지 개발, 섬 둘레길 조성, 국민체육문화센터 건립, 자월 힐링꽃섬, 영흥 미래에너지 파크 조성 사업에 참석자들의 큰 관심이 쏠렸으며, 문 군수는 “진행 중인 사업은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은 최대한 살려 지역경제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신 성장사업들은 반드시 사업 정착과 이후 신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발전과 민생 해소를 바라는 96건의 새로운 군민들의 건의사항이 전달되었으며, 군은 빠른 시일 내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사업계획 및 내년도 사업예산 반영을 위한 재검을 내딛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는 그간 궁금했던 사항이 대부분 해소됐고,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사업계획들에 놀랐고 기대된다는 참석 주민들의 반응과 평을 받았다.

문경복 군수는 “민생문제 및 인구문

제 해결은 군민들의 큰 바람이자 저의 가장 큰 소명으로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고 밝히며, “섬마다 사람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지역으로 변모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과 성장동력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발전과정 속에 뒤따르는 불편과 부작용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늘어난 재원은 민생에 환원하여 군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높아지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트레킹 투어 회원모집

‘대부도저널’에서 매월 1회씩 전국 유명 트레킹 장소를 투어하기 위한 ‘저널 트레킹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걷는 것을 좋아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첫번째 저널 트레킹

1. 일시 :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8시 출발 (오전 7시 50분까지 집결)
2. 장소 : 트레킹 장소 (강원도 철원 소이산 둘레길 등)
3. 모집 인원 : 선착순 40명
4. 모집 마감일 : 9월 3일까지 (여행자 보험위해 주민번호 필요)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6. 참가비 : 1인당 5만원 (식비, 관광버스 왕복, 간식, 물, 보험, 레일바이크 탑승료 포함)
(계좌 : 농협 352-2309-3205-43. 예금주 : 이선화 / 입금 후 연락바람)
7. 집결장소 및 시간 : 대부도저널 주차장 (단원구 상동로 97)

장윤정 의원, 양지중 학생 안전 위해 ‘경기도교육청-지역교육청’ 협력 주도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양지중학교의 옥상 지붕기와 교체를 위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이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된 안산 양지중학교의 옥상 지붕기와 교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안산교육지원청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냈다.

장윤정 의원은 7일 안산 양지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옥상 지붕기와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시설과,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기와 교체 공사 추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양지중학교는 최근 옥상 지붕기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 등 기상 악화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인명 피해 등은 없었지만, 학교 측은 학생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선제적으로 기와 교체 공사를 위한 예산 지원을 교육청에 요청해 왔다.

장윤정 의원은 “학생의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단 한 순간도 소홀히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양지중 사례는 작은 위험 신호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



장윤정(오른쪽에서 네 번째) 의원이 7일 양지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옥상 지붕기와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 시설과,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기와 교체 공사 추진 방안 및 예산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김태창 기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특히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와 시설과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서서 협력해준 덕분에 빠른 대응이 가능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교육청과 도의회, 학교 현장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학생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비용을 따질 수 없다”며, “이번 조치 역시 학생 안전을 최우선에 둔 교육청의 일관된 원칙 아래 추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귀태 경기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양지중은 아름다운 학교로 선정될 만큼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이번 지붕기와 교체 역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학교의 미관과 정체성도 함

께 고려한 방향으로 공사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이번 공사가 단순한 시설 정비를 넘어 학교의 역사와 문화,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하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논단

주식에 부과하는 세금 10억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



김선중
광고국장

주식은 아무리 벌어도 세금이 없어야 한다? 12월 말일 단 하루만 피해지는 대주주 기준 이것이 정의인가? 요즘 주식시장에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주식을 모르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탈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10억 대주주에게만 세금을 내게 하려는데 10억원 그 금액이 낮다고만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실은 년중 12월 31일 단 하루만 보유한 금액으로 그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

12월 말일 그 하루만 빼면 연중 수십억원, 수백억을 사고 팔고하여 얼마의 돈을 벌어도 세금이 0 원이

라는 것이다.

세상에 눈감고 코베어 가는 세상이라도 이런 제도가 있는가?

부동산이든 월급을 받는 사람이든, 또한 일반사업자든간에 얼마의 돈을 벌면 반드시 모두가 세금을 내게 되어있다.

그런데 주식만이 12월 말일만 빼면 1년중 얼마를 벌어도 세금이 0 원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정부, 정치인, 언론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왜 매일 10억원 기준점이 낮다고만 말 하는가? 왜 쫓점을 흐리게 하는가?

10억원이면 누구에게나 큰 돈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으면서 왜 일반인들에게 10억은 기준점이 낮다고만 호도 하려고 하는가?

정책당국이나 정치인 언론인들은 방향을 바르게 잡아주고 사실을 정확히 말하여야 한다.

주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기준점을 다소 조정하더라도 년중 언제든지 사고 팔아도 돈을 벌면 반드시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공정한 세법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로 만나는 광복과 평화... 시흥에서 펼쳐지는 대축제

경기바다드론쇼 여름밤 수놓을 1,500대 불꽃 드론 군집비행쇼

독립의 역사와 광복의 정신을 문화예술로 재해석하는 ‘빛으로 기억하는 광복, 2025 리부트(Reboot) 815’가 오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일대에서 펼쳐진다.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K-콘텐츠 페스티벌, 미디어아트 쇼,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드론 쇼 등으로 구성되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종합 축제로, 자유와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계와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됐다.

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아트센터 등 공공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K-콘텐츠 페스티벌’은 세계에 저력을 떨치고 있는 K-콘텐츠를 통해 광복의 가치를 풀어낸다. 경기아트센터 산하 네 개의 예술단 공연과 함께,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K팝 아티스트들이 가세하여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우리 민족이 쟁취한 독립의 의미를 조명한다. 공연은 양일간 저녁 7시부터 웨이브파크 앞 특설무대에서 펼쳐진다.

15일에는 연극 단체인 경기도극단과 클래식 연주단체인 경기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출연한다. 경기도극단은 연극 〈동양, 1919〉, 〈끝 수 없는 불꽃〉 등 공연을 통해 역사적 이슈를 조명해온 바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윤봉길, 안중근, 김구, 유관순 등 독립운동가 13인의 입을 빌려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는 낭독극 형식의 연극을 선보인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관악기와 타악기의 합주를 들려준다. 금관의 힘과 타악의 리듬이 결합하여 빚어내는 장중한 음향을 통해 독립 영웅들의 정신을 기리며 광복의 영광을 되새기는 감동의 자리를 마련한다.

16일에는 한국무용 단체인 경기도무용단과 국악 연주단체인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가 나선다. 경기도무용단은 다섯 개의 북을 치며 추는 전통춤 ‘오고무’를 선보인다.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장단과 함께 펼쳐지는 화려한 북놀음과 경쾌한 춤사위를 통해 광복의 환희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한다.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는 북한 작곡가 최성환이 우리 민요 아리랑을 환상곡 풍으로 풀어낸 ‘아리랑 환상곡’을 김성진 예술감독의 편곡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뉴욕 필하모닉이 2008년 평양 공연

에서 연주하며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다. 이 외에도 한국 영화의 대작 ‘태극기 휘날리며’ OST의 국악관현악 버전(이동준 작곡/이교운 편곡), 한국인 특유의 ‘신명’을 ‘놀이’의 방식으로 풀어낸 ‘축제’ 3악장(이준호 작곡)으로 관객들과 함께한다.

축제는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어지며, 거북섬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한여름의 열기 속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K-콘텐츠’를 통한 역사 인식 제고는 물론, 경기도의 문화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릴 기회

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희 경기아트센터 사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의 문화를 세계와 공유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알리고자 한다. 광복 8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문화예술로 풀어내어, 도민과 세계인에게 진한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기대를 전했다.

관람을 원하는 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기아트센터 홈페이지(www.gga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창 기자 chang4900@naver.com



대부도저널 피싱클럽 회원모집

대부도에서 낚시를 떠나고 싶는데 선뜻 혼자 떠나기 망설여지시나요?

대부도저널 피싱클럽에서는 안산 대부도를 거점으로 전국을 무대로 생활낚시의 모든 장르 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낚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널 피싱클럽과 함께 떠나시기 바랍니다.

■ 저널 피싱클럽 소개

1. 활동내용 : 정기 출조, 낚시기술 공유, 친목도모
2. 낚시대상어종 : 우럭, 농어, 대광어, 갑오징어, 쭈꾸미, 문어, 백조기, 심해 갈치
3. 정기모임 일정 : 매월1회 정기 출조 (유어선 독배운영)
4. 대상 : 낚시를 좋아하는 모든 남,여 / 초보자 대환영 / 대부도 거점으로 서울, 경기권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 가능
5. 연락처 : 신문사 032-880-9994 / 이선화 과장 010-2535-2728

★동호회 혜택 : 초보자를 위한 낚시 장비 사용법 및 기초교육, 숙련된 회원들과 경험 및 노하우 전수

정기 출조 이벤트 및 선비 할인



안산은 이제 전 세계 50개 도시와 경쟁... 과정과 앞으로의 여정은



2025 메이어스 챌린지 최종 본선 진출 도시를 알리는 안산시 공식마크. 윤성용 기자

전 세계 도시들이 혁신 정책의 우수성을 겨루는 '정책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안산시가 서울특별시와 함께 50개 결선 진출 도시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미국 블룸버그 재단이 주최하는 '2025 글로벌 시장 챌린지(Global Mayors Challenge)'는 10만 명 이상 인구의 도시를 대상으로 60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전 세계 도시 정책 경연의 장이다.

이번 선정은 안산시가 기초지자체로서는 국내 최초로 본선에 진출한 쾌거이자, 도시정책의 다양성과 혁신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호평받았다. 이번 성과는 이민근 시장을 필두로 현장에서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오랜 시간 정책적으로 탄탄히 기반을 다져온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 플랫폼 및 콘텐츠 구축'이라는 아이디어로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특성과 다양한 외국인 인구를 반영한 청년문화센터 조성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정책은 e스포츠센터, 푸드존, 미디어센터 등 청년과 근로자 모두가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 산업도시의 정체성과 상호문화도시로서의 미래 비전을 동시에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안산시는 블룸버그재단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디어 캠프, 온라인 회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정책의 구체화와 실행 가능성 검증에 나선다. 내년 1월 최종 25개 우승 도시로 선정될 경우, 100만 달러의 상금과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정책 실행 지원을 받게 된다. 안산시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과정과 전 세계 정책 혁신의 무대에서 펼쳐질 도전을 조망했다.

글로벌 무대 진출의 원동력은?

글로벌 시장 챌린지는 기후 위기,



이민근 시장이 지난해 10월 안산사이언스밸리 투자설명회 및 자산화연 간담회에서 한 청년 사업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혁신 정책으로 세계가 주목한 안산... 산업단지에 매력적인 문화를 '블렌딩' 시민과 함께 아이디어 고도화, 실행 전략 구체화에 총력...“글로벌 경쟁력 입증”

경제회복, 사회포용 등 지구촌 도시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정책과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글로벌 단위 공모전이다. 올해 세계 633개 참가 도시 가운데 안산시는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내 '문화가 있는 청년문화센터 조성' 전략을 통해 최종 파이널 50개 도시에 선정됐다. 이미 본선 진출만으로도 5만 달러(한화 약 6,800만 원)의 상금을 획득해 사업 추진에 동력을 마련했다.

민선 8기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라는 시정 비전 아래, 기업·청년·시민이 자유롭게 변화를 주도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 경제와 일자리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고 도시 혁신에 매진해 왔다. 특히 전국 지방정부 간 치열한 공모사업 경쟁에 대응하고자 기획 전담형 공모사업팀을 신설하고 정책기획·공모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한편, 시가 공모 제안한 반월국가산

업단지는 1980년대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한 핵심 국가산업단으로, 현재 9,000여 개 기업과 11만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청년 근로자 비율 저하(전국 평균 15.1% 대비 13.9%) 등 구조적 한계가 대두됐다.

이에 안산시는 청년친화도시를 목표로, 스마트허브 경쟁력 강화 간담회 및 청년 노동자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2023년)한 데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 패키지사업' 국가 공모에 선정(2024년), 2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산단 내 청년문화센터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추진 등 청년이 찾고 머무는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청년문화센터는 단순 문화공간을 넘어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산업단지 및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공간 구성과 프로그램 기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안산시는 글로벌 시장 챌린지에 공모 제안서를 제출, 내·외국인 청년 근로자가 함께 어울리며 대한민국의 'K-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청년문화센터 조성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내 도시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대한민국 도시 최초의 '우승' 타이틀 도전

안산시는 예산 통과에 이어 정책 아이디어를 한층 구체화하며, 내년 1월 열릴 최종 결선에서 우승을 목표로 도전한다.

'함께하는 거버넌스와 통합', '색다른 문화 교류'라는 혁신 아이디어로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경쟁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점에 기반해 정책 아이디어의 구체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글로벌 시장 챌린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아이디어 고도화와 실행 전략 수립을 마쳤다. 이달부터는 블룸버그 재단에서 제공하는 '아이디어 캠프', '주간 코칭', '기술 자문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정책의 실행력을 한층 높여갈 계획이다.

안산시는 내·외국인 청년들이 함께 모여 문화를 나누고, 서로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청년문화센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청년문화센터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플랫폼이자, 안산만의 도전 정신과 혁신 아이디어로 도시의 변화를 이끌고 세계를 감동하게 할 수 있는 여정으로

완성 시켜 나간다는 포부다.

이민근 시장은 "이미 본선에 진출한 것만으로도 경쟁력을 인정받았지만 최종 우승을 거머쥘으로써 대한민국 지방정부도 세계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선에서 최종 우승하면 대한민국 도시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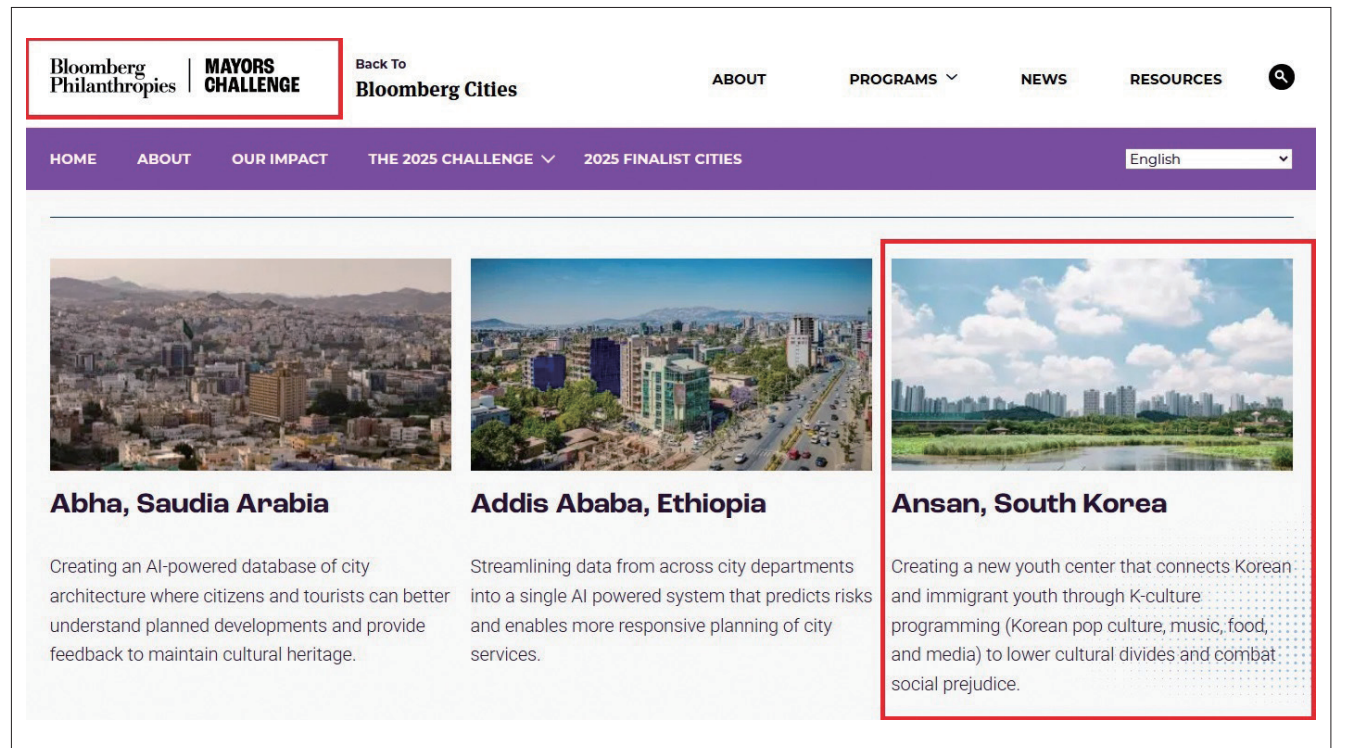
이 시장은 "전 세계 도시에 다양한 정책이 모이는 만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갈 혁신의 여정으로 세계에 이름을 끌고 그 성과를 다시 시민 모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디어 고도화와 실행 전략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시민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청년문화센터 총별조감도(안)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안산시, 美 블룸버그 재단 글로벌 시장 챌린지 최종 후보 도시 올라

윤성용 기자 jinsan1002@hanmail.net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17회]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연구성과 및 향후 과제 포럼 개최[하]



晴境(정경) 金善喆(김선철)
전 대남초등학교 교장
현 안산문화관광해설사

지난호 계속 1960년대 중반까지 운향한 소금과 젓갈 및 해산물을 싣고 마포나루까지 오간 대부도의 돛배를 '마포나루 젓갈 축제'와 연계한 관광 자원화가 요구된다. 대부도에 위치한 조력발전소, 낙조 전망대, 바다향기수목원, 각종 박물관 등의 기존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섬마을 선생님' 배경지 대부도의 관광자원 활성화로 대부도의 경제 활성화와 문화 및 체험 등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와 관련된 '섬마을 가요 대회', '섬마을 아가씨 선발대회', '총각 선생님 선발대회' 등을 통하여 전국적인 '대부도 섬마을 축제'로 발전' 시기길 바란다.

세 번째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이탈리아 나폴리대학교,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국 베이징대학 교수, 고려의 동아시아 시문학-百集 등 고려의 금석, 문학, 가요 논문 330여 편을



허홍식 박사의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로서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 모습, 좌 이근희 지회장, 우 박성호 작곡가



2019.04.10. 안산시청 대회의실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 포럼」, 경청 장면

발표한 사학자 허홍식 교수는 「정주형(定住型) 관광지 대부도와 섬마을 선생님 노래 배경지」에 대해 발표했다. 우리 나라에서 너무나 유명한 박성호 작곡가께서 연구 성과를 보고 이 노래의 배경지는 대부도라 인정하였다.

국민가수 이미자의 노래는 섬과 여자 그리고 애절한 노래가 많다. '섬마을 선생님' 노래도 섬 색시, 이별, 그리움 등 애절한 노래다. 섬에 사는 여자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웠기에 더욱 슬프거나 간절함이 심금을 울린다. 작사자 이경재는 KBS 드라마 연출자, 작가였고, 작곡가 박춘석은 가사에 영혼을 불어넣는 철학자였으며, 가수 이미자는 관객(觀客)의 마음을 사로잡는 배우였다. 그래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는 섬사람의 삶이 깃들여 있는 드라마이다.

안산시에서 '섬마을 선생님' 노래 가사를 분석하여 배경지의 주민, 자연환경, 시대적 배경 등을 조사 연구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그만큼 안산시가 문화 콘텐츠 개발에 선구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요의 노랫말을 분석하여 포럼을 개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유럽에서는 노랫말로

수많은 연구와 기념사업으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곳이 많다.

대부도에도 '섬마을 선생님' 기념 공원이나 박물관을 지어 안산 대부도 대표 브랜드로 발전시키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최고의 명소가 될 것이다. 섬마을 축제, 음악 치유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비용 대비 가성비를 높일 수 있고 안산시의 대부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토의 및 질의응답 순서 시간에 양운영 대부동 주민자치 위원장은 '섬마을 선생님 노래 기념비와 기념관' 건립을 강조하고, 이갑성 안산시 대부도 에코뮤지엄센터장은 해당화를 많이 심고 소금 돛배 운행도 해야 한다. 이기용 국장은 노래 배경지 관련 연구와 고증(考證)을 더 거쳐야 안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다.

데스크 칼럼

대부도, 진정한 수도권 대표 관광지가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김태창
편집국장

자 중심의 일방적인 조치다.

특히 야간에 해솔길 1코스를 따라 낙조 전망대를 걷고자 할 때, 화장실이 닫혀 있고 가로등마저 꺼져 있어 관광객들이 불편함과 불안함을 느끼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하다.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통제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관광객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관광지는 '찾고 싶은 곳'이 되어야 하며, 이는 단속이 아닌 서비스 중심의 사고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부도에 관광객이 대거 몰리고 있다. 서울 및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바다를 낀 아름다운 자연환경 덕분에 대부도는 매년 휴가철이면 주목받는 관광지다.

특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한 바닷바람 덕분에 많은 이들이 대부도를 찾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관광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관광 인프라와 대응 체계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대부도가 지속 가능한 관광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시선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영받지 못하는 '차박' 문제에 대해 최근 대부도 해양수산과에서 해솔길 1코스 주차장 인근과 종현어촌휴양마을 인근의 차박 차량을 전면 철수시킨 것은 바람직한 결정이었다.

무분별한 차박은 지역주민의 생활을 침해하고 쓰레기, 소음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관광객이 최소한의 위생 시설조차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일부 관광객이 화장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막힌다는 이유로 공중화장실을 폐쇄하는 것은 공급

가로는 늦은 시간까지 유지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화장실도 야간에는 최소한의 조명을 켜고 운영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만약 유지·관리 문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민간 협력 또는 지역 고용을 통한 위탁 운영 등의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아울러 바가지 요금은 절대 금물이다. 대부도를 찾는 이들이 "가격 대비 만족"을 느껴야 지속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광객은 일회성 수익이 아닌 지역 경제를 살리는 장기적 자원임을 인식해야 한다.

대부도는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다. 그러나 그 가치를 지키고 키워가기 위해서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배려와 개선이 필요하다.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눈으로 보는 순간, 진정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도는 관광객이 많아져야 행복한 곳이다.

일회성에 그치는 관광객은 오기도 힘들지만 와서도 제대로 대부도를 알 수 없다.

이들이 재방문을 할 때 대부도는 편한 곳이 될 수 있고 주민들 또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윤리적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언론

대부도저널

창간
2025년 4월 7일

주 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상동로97, 3층(대부북동)
대표전화 (032)880-9994 팩스 : (032)880-9961
홈페이지 www.daebudojournal.com
E-mail_ dj250407@naver.com
입금계좌 : 신한 131-022-633961(대부도저널주식회사)

회장 양운영 대표이사/발행인 윤성용 편집국장 김태창 광고국장 김선충

등록번호 경기 다50794

구독료 월10,000원 | 1부 3,000원(주간)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양지개발 토지컨설팅사무소

토목공사 / 건축공사 / 보강토 시공 /

토지개발/ 토지분양 / 컨설팅

대표 김 상 준 H. 010-9393-5783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67-12(방조제길 113)

토지분양

“안개처럼 고요한 물가, 마음이 스며드는 쉼의 공간”

1. 대부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 건폐율 인센티브 30% 적용
2. 펜션 단지 전체 도시가스 사용, 펜션단지 내 도로 8M 확정
3. 서해의 낙조가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 최고의 전망
4. 사계절 인기 만점, 대부도 최고의 수익형 부동산



감성과 수익이 흐르는 부지
대부도 말부흥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

펜션부지 토지분양 말봉펜션타운 (옛 말봉바다낚시터 부지)

설계사무소 : 대부도측량설계사무소 시공사 : 양지개발

토지주 직접 분양 : (주) 말 봉 상담전화 032.886.1677 FAX 032.887.1677